독서의 계절, 책을 버리자

이 성 수
〈출판저널기자〉

에세이

한 출판 전문기자가 그러보는 '책'없는' 세상 이야기

파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물건이라면 분체될 것이 없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 앞에 있던 것이 한 순간 사라지고 그것을 이후에는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갑갑함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특히 그 물건이 인간의 입에서 쉴 새 없이 나오는 '언어'라는 것일 때. 최근에 재미있는 책 한 권이 나왔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터버가 쓴 'O빠진 영어'(한뜻 출판사)이 그것이다.

리틀 책과 블랙이라는 해적 두목이 일당을 이끌고 보물을 찾아 우루라는 섬에 도착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임원선씨가 번역했다. 해적들은 평화로운 우루(Oorroo)섬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보물을 찾는 한편, 섬 주민들에게 영어 알파벳 'O'자를 쓰지 못하게 하는 기상천외한 처령을 선포한다. 알파벳 'O'자가 들어 있는 말을 사용금지하고, 그뿐 아니라 파아노나 오보에 등 'O'자가 들어 있는 악기도 연주를 금한다. 나중에는 집(house)에서도 살 수가 없게 만들려고 한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해적들은 'O'자가 들어 있는 음식을 식당에 올리지 못하게 한다. 영어에서 알파벳 'O'자가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루섬은 'R'이 되고, 신발(shoe)은 그녀(she)가, 보트(boat)는 박쥐(bat)가, 코트(coat)는 고양이(cat)가 되는 등 기상천외한 상황이 발생하고 만다. "헬로우(Hello)!"라는 인사도 물론 금물이다. 여기서 'O'자를 빼면 hell(지옥)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섬 주민들은 알파벳 'O'자가 들어 있는 말중 가장 위대한 힘을 지닌 말을 찾아내려고 애쓰다가 희망(hope), 사랑(love), 용기(valor)를 찾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말, 자유(freedom)을 찾아내면서 해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 제임스 터버는 유머와 위트를 지닌 풍자 작가로 일곱살 때 화살을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중년기에는 오른쪽 눈의 시력도 잃어 장님이 되었지만, 장님이 된 이후에 더욱 환상적인 작품을 많이 썼다고 한다.

이 책 'O빠진 영어'에서는 지은어 터버의 낱말에 대한 각별한 관찰과 해박한 지식을 만난 수 있는데, 번역문과 함께 책 뒤에 저자의 원본을 그대로 싣고 있어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제목과 어울리지 않게 얇파뱃 'O'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리틀 책이나 블랙이 되어보자. 이 가을날, 책이라는 걸 싹 없애는거나, 태운다거나, 찢어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자.

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불행할 것인가. 출판사가 없어지고, 서점이 없어지고, 신문의 출판기사나 문학기사가 없어지고, 덩달아 출판, 문학단당기자도 없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화의 요소들이 사라짐은 물론이려니와 이들 문화적 욕망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솟아났던 소소한 욕망들이 십시간에 와르르 소멸될 것이다. 우선 여성들의 멋의 상징으로 걸치고 다니던 갖가지 브랜드명, 구찌, 시스템, 크리스찬 디오르, 엘칸돈, 에스콰이어…등등 온갖 의류, 제화, 귀금속 등을 포함해서 그 유명한 카페들도 자진 폐업해야 할 위기가 온다. 왜냐? 이들을 내세울 마땅한 그 부엇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옷과 구두 등을 살수도 없고, 문자가 없어지는 순간 이전에 구비했던 옷들을 그럭저럭 입다가 나중에는 자급자족의 사회를 강변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외박문화, 외식문화는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성업중인 술집, 음식점, 호텔이지만 문자 소멸의 위기에 서면 이름값이란 게 통하지 않을테니까. 무한정의 광고로 속이고 현혹돼 운영되던 자본주의는 허탈하게 자취를 감춰야 한다. 이렇듯 기록문화의 소멸 자체만으로도 사회체제가 큰 변화의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이 오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는가. 그렇다면, 약아빠진 인간들은 이 '문자소멸 라운드'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듯 싶다. 어떻게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게 되고 문자 대신 상징적인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또한 얼마 안 가서 고대 상형문자를 리바이벌하는 격이 될 것이다.

책은 읽어야만 할 것은 아니다. 책의 목적이 독서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왜 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인가. 요즘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이라는 대답을 하고 싶은가? 나아말로 그 광고의 대답을 하고 싶다. 혹자는 여기서 "무슨 소리!"라고 일갈을 할 것이지만, 이제 고답적인 대답—바음의 양식이라는—은 통하지 않는다. 또 양식으로 봐 줄 책도 많지 않다.

책은 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엉덩이 밑에 있어도 좋다. 이 가을날 방안에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은 바보다. 홀홀 털고 밖으로 나가서 제 짝을 찾아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이 가을날의 시간 보내기이다. 바로 그럴 때 나무 그늘 무성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책은 꼭 읽는 것이기만 한가
독서는 그 자체로 즐거운 것

고 치자. 읍습하고, 칙칙한, 약간의 어둠이 있다면 더 좋을텐데…

손수건보다는 책이 제격이다. 책의 엉덩이에 깔려 있는 책을 상상해보라. 책은 이런데 쓰는 것이다. 손수건에 비해서 습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든가, 오히려 따뜻하다든가라는 책의 정점은 말하지 않겠다. 아무튼 좋은 것이 좋으니까 말이다.

어렸을 때 형이나 누나의 책 혹은 공책을 한 권 쯤 슬쩍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이비행기를 만들거나 딱지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사춘기 때는 읽지도 않는 책을 권히 옆에 끼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말이다. 날날이패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어김없이 'TIME'지가 있다. 있는 '척', 배운 '척'하기 위해서 말이다. 어떤 이는 베개 대신에 책을 사용한다고 한다. 고급스럽지만 사치스러운 취미다. 아무튼 책이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직업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는 동문 황인용 아나운서이고 그 뒤는 제작 PD진이다.

EBS 이렇게 이용하자

1990년 12월 27일 교육방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 부서에서 정식 부설기관 EBS로 새롭게 탄생했다. 그동안 "TV과외"라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딱딱한 프로그램들에서 비롯된 교육방송의 이질화를 벗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변경된 명칭 EBS는 다양한 기획과 폭넓은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감으로써 현재 시청자들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EBS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노종단(기획조정실·홍보협력부) 차장은 "EBS라고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교육부의 통제와 간섭은 여전하다. 매스컴 이론에 대해선 전무한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이 편성권(Time cable)과 최종결정권을 갖는 등 불합리한 행정운영이 EBS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육부와 줄기찬 마찰끝에 EBS팀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네마 천국'이 한국방송대상을 차지해 제작팀의 용단이 옳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기도 했다. EBS내의 자율성 확득과 개혁의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EBS 제작진들은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방송·양질의 교육방송으로서의 몫을 하고자'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교양이냐 교육이냐의 끊임없는 논란속에 EBS는 다채로운 아이템과 사생력을 갖추려 21세기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이다.

EBS 교육방송은 크게 교양과 어학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진다.

교양프로그램의 문학·음악·미술 등은 시청자을 만족시킴으로써 손쉽게 양질의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문화의 대중화도 이룰 수 있기에 사회교육의 측면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어학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가 먼 학우들은 통학시간을 이용하여 영어 및 일어 등 외국어 청취가 가능하게끔 어휘으로 편성되어 있다.

매일 규칙적으로 청취하고 연습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점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일반교양 만큼이나 외국어의 중요성은 각별히 중요한 시대임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유경 기자〉

◇EBS TV 주요 프로그램 (CH13)

교양			어학		
제목	요일(시/분)		제목	요일(시/분)	
직업의 세계	월~금(오후 7/00)		리스닝 스페셜	월~금(오후 7/40)	
자연과과학	월(오후 7/40)		영어회화	월~금(오후 8/40)	
자연탐험을 찾아서	화(오후 7/40)		일본어 회화	월~금(오후 9/00)	
마음의 양식	금(오후 7/40)		독일어회화	월~금(〃)	
다큐멘터리의 재개	월~목(오후 8/15)		중국어 회화	월~금(오후 9/20)	
한국의 악기	토(오후 8/55)		프랑스어 회화	월~금(오후 9/20)	
EBS 미술관	수(오후 9/50)		스크립 영어	일(오전 11/30)	
문학산책	목(오후 9/50)				
시네마 천국	금(오후 9/50)				
다시보는 명화	일(오후 1/00)				
예술의 광장	일(오후 8/00)				

◇EBS Radio 주요 프로그램(104.5MHz)

교양			어학		
제목	요일(시/분)		제목	요일(시/분)	
우리말 노랫말	월~토(오후 1/00)		토픽강좌	월~토(오전 7/00)	
야사 한국사	월~화(오후 2/00)		생활영어	〃 (〃 7/15)	
라디오 세계여행	금~토(오후 2/00)		일본어 강좌	〃 (〃 7/30)	
라디오 명시감상	수~목(오후 2/35)		일기쓰는 중국어	〃 (〃 7/45)	
말을 남긴 사람들	금~토(오후 2/35)		불문과 라 프랑스	〃 (〃 8/15)	
명시의 세계	일(오전 8/00)		초급에스페라토	〃 (〃 8/30)	
일요 국악한마당	일(오후 1/00)		초급러시아어	〃 (〃 8/45)	
EBS 동물원보	일(오후 3/55)		TUFZE 강좌	일(오전 7/00)	
문화의 향기	일(오후 4/00)				

인터뷰

'직업의 세계' PD 황인수씨를 만나

EBS TV의 얼굴이며 최장수 프로그램인 '직업의 세계' 제작PD인 황인수씨를 만났다. 다음은 그 일문일답.

▲준사회인인 대학인들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직업의 세계'에 대해 소개한다면.

—'직업의 세계'는 EBS와 역사를 함께 해 왔다. 90년 이전에는 '방송교육'이 이원화되어 교육방송 개발원서는 학교교육을, KBS 제3TV에선 성인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했었다. 그 당시부터 일주일에 한 번 '직업의 세계'류의 방송이 있었으며, 90년 12월27일 EBS가 정식 개국한 후로는 월~금 주 5회 방송으로 개편되어 PD 3인(이영태, 황인수, 형건)과 조연출 2인의 인력으로 작업량을 감수하지만 보람을 느낀다.

▲그 보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업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의 보도로서 시청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적인 전화상담을 통해 시청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을때 보람을 느낀다.

▲방송을 제작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접근방식의 문제이다. 한 직업의 화려한 면과 힘든 면중 어느 것을 부각시켜야 시청자들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줄런지는 항상 유동성 있는 잣대를 가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직업 현황은.

—1만2천여종의 직업이 있다는 자료가 있다. 앞으로 사회가 바뀌고 발전할 수록 더 많이 세분화되고 생성될 것이다.

▲주된 제작의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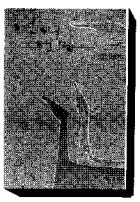
—처음에는 교육부의 정책상 '고졸학력으로도 잘 살 수 있다.' 는 취지로 각종 정비공등의 육체노동의 세계로 일관했으나 근래에 들어 첨단 직업, 미래지향적 직업을 주로 보도하고 있다.

▲대학인에게 한 마디 한다면.

—우선 직업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광고에서 보여지듯 신세대 여성의 왜곡된 모습들이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세분화된 직업의 여러 지류 중 하나를 찾아 스스로 실력을 쌓아 가고 전문인들을 만나 보는 적극성을 가져야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虞〉

신간안내

에세이집 "연애원망"



아키야마 사토코 지음, 김난주 역

양성유구의 합체의 이미지는 영원불변의 진실임을 보여 준다.

대체적인 통속적 사랑의 비화패들은 사토코씨의 말처럼 '연애게임'이나 '연애유희'같은 유흥 위주의 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반면 이 책 '연애원망'은 통속적 사랑관을 잔잔히 비판하면서 연애의 진정한 의미와 원망(願望)을 돋출해 내고 있다.

'연애원망은 인간성 부활의 상징이다'란 첫머리고 시작되는 이 책은 남녀간의 연애관에 인간성을 결부시켜 총5장으로 구성지어졌으며 인간의 심리, 죽음, 현실 등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향락으로 매몰되어가는 현대의 연애관을 반성하고 자연적·근원적 연애관을 지니게 되었으면 한다. 〈勇〉

미교과, 졸업전시회

김순애의 'ego-본제입답'

제26회 미술교육과 졸업작품 전시회가 지난 9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덕원 갤러리 4, 5층에서 개최된다.

졸업인원 46명으로 미술교사로서의 품성과 함께 미술인으로서의 예술적 자질을 연마하고 졸업생 모두가 그간의 결실을 확인함은 물론 사회로의 진출을 앞두고 나름의 목표와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를 취지로 하여 다채로운 작품이 선보인다.

유재하 음악회 개최

재단법인 유재하 음악 장학회는 '제6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위한 대중음악 창작 경연이다.

참가곡은 4분이내의 미발표 창작곡이며 참가자격은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서 교부는 9월22일에서 10월 12일까지, 접수는 10월 1일에서 12일까지, 유재하 음악 장학회.

□문의 : 549—0585(하나음악)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실무에선 내가 최고!

가장 절실한 것은 급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실무자의 자율경영의지이다

"조정경기와 고무보트"

조정경기식 경영

과거의 우리의 경영은 마치 조정경기장의 위만한 물살 위에서 조정경기를 하는 것과 같았다. 정해진 코스를 따라 리더가 맨앞에서 "이어차, 이여차"하고 구령을 붙이면 그 구령에 따라 뒤쪽이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어 가는 식이었다. 그때는 환경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리더의 지시하에 관리·통제만 상대편 남보다 빨리 끝인점을 통과할 수 있었다.

고무보트경기식 경영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우선 우리가 경기하는 시합장이 그렇게 아무 장애물 없이 잘 정돈된 것이 아니다. 지금의 경영은 마치 대평도 캐나다 협곡에서 벌어지는 고무보트경기와 같다. 바위에 부딪혀 되어 오르는 거대한 물살이 조그만 고무보트를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가 하면, 좌측으로 갔다가 큰 바윗덩어리가 나타나서 부딪치면 금방이라도 사람이 위로 솟구쳐 나가듯에 휩쓸릴 것 같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측에는 날카로운 곶이 나타나 조그만 그 방향으로 휩쓸려도 고무보트가 뒤집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리더의 역할

리더가 한가로이 구령을 붙일 수도 없고, 하물며 일일이 지시를 할 여유도 없다. 길이 지금을 향한다는 보표만 공유할 뿐 각자가 제 위치에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를 젓다가 때로는 노를 내밀어 바위를 피해 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리더의 역할은 코스를 철저히 파악하여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체질을 갖추도록 미리미리 훈련시키고 현장에서 솔선수범해 나가는 것이다.

자율경영의 필요성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 조직을 움직이는 경영이 자주면 들어 있다.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시장(市場)이, 고객이, 경쟁자가 도면하고 있고 해상에 출입하게, 사실에게 의사전달은 수해 다시 역으로 지시가 떨어진 다음에 무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려다 보면 이미 그 때는 늦다는 훈수도 없어지고 난 뒤가 된다.

자금은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알고, 현장에 가장 가까운 담당자가 전략의 회사에서 환경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적절히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자율경영이 이는 때보다 절실하다.

—「사장화장 제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